

“농기계 부채 농협이 갚아라”

악재 견힌 증시 “뺨다 뛰어”

어제 코스피 39%P 급등 ... IT·자동차·금융업종 주도

정 농림장관, 농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특강 신용 부문서 매년 1조2천억 흑자 농업 이익 환원 차원에서 해결해야

정 농림장관, 농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특강
신용 부문서 매년 1조2천억 흑자
농업 이익 환원 차원에서 해결해야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장중 4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39.94포인트(2.35%) 오른 1,742.1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650선 근처까지 회복됐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장중 4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39.94포인트(2.35%) 오른 1,742.1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650선 근처까지 회복됐다.

기까지 몰렸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정상화가 속속 이뤄지기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오승훈 애널리스트는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은행들의 추가부실 우려보다 이번 대규모 상각과 자본 조달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유관기관 업무현황 파악차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를 방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현재 농업인들의 농기계부채가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한해 1조2천억~1조3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기부터 지금까지 뒷분들 사이에서 이같은 여론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런 발언은 농협이 농업인들을 대신해 일단 농기계를 구입해주고, 이를 통한 임대사업 등을 전개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농기계부채 지원이 이뤄진다면 결국 ‘임의적립금’(작년 4천100억원) 항목에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영농자금 지원이나 신용·경제 분리 준비 작업 등에 사용될 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투자심리가 호전된데다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해 정보기술(IT), 자동차, 금융업종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낙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튼튼한 펀더멘털도 국내 투자자들의 증시 복귀를 앞당기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LCD 패널업계의 업황 턴어라운드 이어 올해는 반도체가 상반기 중 최악의 국면을 지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황 호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IT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정부 산하 47개 기금 운용 평가 성과 미흡땀 예산 10% 삭감



2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국산 장미 품종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설치 세금 고충 던다

정부는 산하 47개 기금의 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통합합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사업운영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 작업을 최근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다양한 국산 장미

2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국산 장미 품종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해 납세자의 세금 고충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 가산금 큰폭 준다

30대그룹 투자 더 늘린다

7월부터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4천곳 확대

당초 19%서 23%로 올려 ... 92조원 규모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물게 되는 가산금이 큰 폭으로 떨어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 맞벌이 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30대 그룹이 그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투자 확대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400억원 가운데 올해 1조7천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SK그룹은 SK에너지의 신규 원유정제 고도화설비 투자(총 투자비 1조8천549억원)에 금년 4천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 P8라인(총 투자비 2조 5천350억원) 건설을 위해 올해 중 2조1천23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부당행위 점검”

최종경 기획재정부 차관

최종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투머나 다른 수단으로 환을 움직임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평등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유 없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기아, 핸들·페달 없는 차 만들었다”

외신 ‘만우절 기사’ 눈길 ... “무선게임기로만 운전”
“기아차가 핸들과 페달 조작없이 무선게임기로 조작하는 차를 개발했다.” 일부 외신들이 지난달 31일부터 기아차 뉴질랜드의 ‘신행 연구소’를 인용해 이같은 획기적인 내용의 기사를 타진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터㈜ 전남본부	광주 스키아리이프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360-0503
제이앤비컨설팅	[목포] 현대캐피탈 금융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04	062-224-5863
네오개발	건설공무 및 경리직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6	062-941-2610
남화토건㈜	토목기사공무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06	062-520-1051
㈜화인코리아	식품연구개발/사육/생산/경리/영업(서울)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8	061-330-4523
광림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정보통신/컴퓨터분야) 정규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9	062-529-3000
우양물산	[영업직/생산직]정규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9	062-603-0061
스틸하이테크코리아㈜	경리, 사무관리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1600~1800	04/09	062-944-3771
서암기계공업㈜	구매관리/기술연구소/총무/생산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960-5012
남해철강㈜	[품질관리/공무/경리]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943-8676
신한포토닉스㈜	광네트웍연구소 연구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949-7106
동양생명보험㈜	2008년 상반기 자산관리사 공채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226-4904
㈜컴팩아시아	[주컴팩아시아] 생산관리 직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4	070-7018-0083
IAE 유타넷 광주지사	영어권 아카데미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33-8171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호 인수 대한통운

7년 만에 정상운행

올 매출 2조·영업이익 1천억 목표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대한통운이 7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로 새출발한다. <사진>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01년 6월 모기업이던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7년 만에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됐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이후에도 노사가 단절해 국내 물류업계 정상화의 자리를 고수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2천669억원, 당기순이익 760억원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냈다. 또 지난해 연간 1억2천242만 상자의 택배화물을 처리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내렸던 국내 택배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대한통운은 지난달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법정관리 졸업으로 절차상의 그룹 계열사 편입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지난 1일부터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CI인 날개(Wing)를 사용하고 있다. 사명 '대한통운'은 그대로 유지하나, 서체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타겟열사들과 같은 회색의 고유서체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대한통운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연계해 다양한 특화상품을 선보여 올해 자회사 포함 매출액 2조원, 영업이익 1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